



광양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광양시 관광협업센터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진수와 광양시의회의장, 서인석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차장, 관광협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관광협업센터 지역관광 멀티플랫폼 기대

커뮤니티센터 사무실·회의실 갖추고 공유·협력 관광협의회·관광두레 등 입주...시민 상시 개방

광양시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공유 기반 구축을 위해 광양시 관광협업센터 단장을 마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광양시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커뮤니티센터 1층에 마련된 광양시 관광협업센터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진수와 광양시의회의장, 서인석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차장, 관광협의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김영관 광양시관광협의회 사무국장의 개회로 시작된 개소식은 박순기 관광협의회의장의 환영사, 정현복 광양시장과 진수와 광양시의회의장의 축사,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관광협업센터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 지역관광협력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센터는 총면적 364㎡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광양시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등 지역 관광조직이 입주할 예정으로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협업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광양 관광플랫폼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귀식 광양시 관광협의회장은 "지난해 광양시 관광협의회라는 인적 기반이 마련된 데 이어 관광협업센터 개소는 함께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는 광양관광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며 "광양 관광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해 6월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 슬로건으로 선포하고 10월 (사)광양시관광협의회를 창립하는 등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험한 걸음을 내딛고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관광협업센터 개소는 광양의 관광 관련 조직과 인재들이 가치를 공유하고 안정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업할 공간을 갖췄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관광상품 개발, 정책 발굴, 관광홍보, 관광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기능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양=허선식기자

구례 도시재생지원센터 성과 빛났다

국토부 도시재생뉴딜 537억 확보 공모 주목 주민 참여 역량 강화·도시재생대학 등 박차

구례군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발전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1일 구례군에 따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해 비상근 체제로 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부터 전문인력 센터장과 코디네이터 2명이 상근 체계로 본격 운영하고 있다. 주요 성과는 지난해 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중심시가지형 537억원)과 도시재생예비사업 공모사업(4억원)의 접수수 조사를 사업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해 공모사업 선

정에 기여했다. 또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각종 교육 홍보와 신청 접수를 지원하고 제4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마을활동가 환경지유사를 운영, 야생화골목길 꽃식재·환경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 참여를 이끌어냈다. 지속적인 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컨설팅·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쳤다. 도시재생 접수 지원 사업과 도시재

생지원센터를 녹색 사방방으로 개방, 지역 주민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해결 역할을 하기도 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활발한 SNS 운영과 각종 언론보도로 인지도를 높이고 특히 부처꽃 종자 10ℓ(시가 500만원 상당) 무료 나눔(전국 472명) 행사를 추진,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와 위상을 제고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유행과 여름철 수해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교육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지원과 협력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광양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지원

광양시가 신규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올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교육은 연수생(멘티)과 선도농가(멘토)가 한 팀을 이뤄 진행되며 선도농가 현장에서 관심 분야 작목 재배 기술과 정착 과정 상담, 창업 과정 등을 연수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 동안 월별 20일(월 160시간) 이상 연수하면 매일 교육생에게 80만원, 선도농업인에게 40만원 한도에서 교육 훈련비가 지원된다. 교육은 2월 5일까지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신청받아 3월 중 광양시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3개 팀을 선발한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5년 이내 귀농인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신규 농업인이다.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귀농 여부나 지역 내 농촌지역 거주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광양=허선식기자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50% 감면

광양시, 일반용 내달부터 3개월간 혜택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양시 수도요금 조례 제40조를 적용해 조기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은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4억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관광서·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상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정과 역량을 동원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3·4월 부과분(17억원)을 감면한 바 있다. (문의: 광양시 상수도과 061-797-3584) /광양=허선식기자

홍수피해 재발 방지 '지구단위복구' 본격화

구례군, 지방하천 6곳 등 2천184억 사업비 확보

구례군이 홍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구례군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1천807억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집중호우 침수 피해가 심한 섬진강 국가하천 배수영양 구간에 대한 행정안전부 '구례군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이 확정돼 올해부터 실시계획을 착수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내 도로·하천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에 복합 피해가 발생해 시설물별 복구보다는 일괄 복구가 필요한 지역,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기능 복원보다는 피해지역 전체를 조망한 예방·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례군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 6개소, 소하천 5개소, 배수펌프장 9개소에 2천184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제방은 섬진강 홍수위와 하천기 본계획에 맞춰 송상하도 불안정한 각종 구조물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구 사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시설물 계약역을 추진하고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사업 구간 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로·교량 등이 포함돼 있는 복합 사업으로 설계 과정부터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수해복구 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 협의해 계획한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성구기자

구례 특산품 매실청 중국시장 진출

한·중 도시발전연맹 중심 1천200명 첫 수출계약

구례 특산품인 매실이 중국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했다. 구례군은 21일 "최근 한·중도시발전연맹이 중심이 돼 구례군 그리울푸드 영농조합법인과 중국한국복덕국제무역유한공사가 매실청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 체결된 한·중도시발전연맹은 6개 한·중 도시가 함께 국제 플랫폼을 구성, 국제 자원과 발전 에너지를 구축하고 도시 협력 성과를 확대시켜 국제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다. 한국에서는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남

해군이, 중국에서는 산둥성 청도시 영양구, 산둥성 래서시, 귀주성 안순시 관령자치현이 가입해 있다. 한·중도시발전연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직접 왕래를 하진 못했지만 제2차 대표자 영상회의를 개최하는 동시에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국제 교류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 계약으로 수출길에 오를 매실청은 1천200명이다. 현지 소비자 반응에 따라 수출량을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으로 향후 중국 수출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이성구기자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2지구 지식산업센터 허드슨 1041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광주의 새로운 심장으로 떠오를 지식산업 핫플레이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자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041번지 * 규모 : 지하층-지상15층
* 대지면적 : 6,618.00㎡ * 건축면적 : 2,493.68㎡ * 연면적 : 37,879.33㎡
* 용도 : 지식산업센터(융합)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명시설

|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 지상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행사시설 3개소 |

모델하우스 운영 중
T.062)650-6109